

문병란 시인 '광주정신' 오라토리오로 거듭난다

김성훈 작곡 '빛고을' 30일 문예회관 공연
오페라 형식 빌려 연극·무용 더해
'아아 광주여 5월이여...' 등 12곡 무대에



고(故) 문병란 시인



김성훈 작곡가



유형민 소프라노



조정현 지휘자

고(故) 문병란 시인이 남긴 5·18 광주 정신이 오라토리오 무대로 광주에서 다시 태어난다.

5·18 장작 오라토리오 '빛고을' 공연이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예총이 주최하고 (사)광주음악협회, (사)서은문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문 시인의 시에 김성훈(광주음악협회장) 작곡가가 곡을 붙여 총 12곡으로 구성된 작품 '빛고을'을 무대에 올린다.

이 작품은 지난 2010년 5·18 30주년을 맞아 총 10곡의 오라토리오 무대로 선보였었다. 이번 공연은 새로 2곡을 추가하고 오페라 형식을 빌려 연극과 무용을 더하는 등 풍성한 무대를 연출한 게 특징이다.

1시간동안 진행되는 이날 공연은 영상 '유네스코가 말하는 5·18의 진실'을 시청하며 막을 올리고, '아아 광주여 5월이여 그 날의 꽃땀이여', '부활의 노래', '전라도 빠꾸기' 등 진흥곡, 교성곡 등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곡들로 무대를 채운다.

5·18 당시 상황을 소녀의 죽음을 통해 묘사한 '저는 그

냥 죽었어(죽은 소녀의 노래)',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로 작곡한 '아, 그날만은(구두닦이의 노래)' 등도 함께한다. 시 '신바람 광주'에 곡을 붙인 '무등을 향하여'와 같이 5·18의 무거운 분위기를 풀어주는 가벼운 곡도 준비됐다. 대미는 광주 정신이 세계로 뻗어가기 바라는 마음을 담은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로 장식한다.

총감독 소프라노 유형민씨가 연출과 진행을 맡으며, 조정현 지휘자의 지휘로 광주시립합창단과 광양시립합창단, 아시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초등학생 정인성군,

대학생 김우성씨 등 솔리스트가 출연 무대를 펼친다. 극단 Y에서 활동하는 연극인 강유미씨가 어머니 역을 맡아 특별 출연한다.

김성훈 작곡가는 "5·18 추모 음악회에서 마땅한 곡이 없어 5·18과 무관한 곡들로 무대를 채우는 게 안타까워 곡을 쓰게 됐다"며 "연극, 무용뿐 아니라 사물놀이, 오페라 등 다양하게 각색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말했다.

전석 무료. 문의 010-9444-4028.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문화전당, 인문총서 '아시아플러스' 칼럼집 '아시아컬처랩' 발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아시아문화연구소를 운영하며 그동안 집적된 연구성과를 보여주는 출판물을 발간했다. 문화예술 관련 인문교양 총서 시리즈 '아시아플러스(Asia+)'와 문화예술 전문가 칼럼집 '아시아컬처랩'이 바로 그것.

'아시아플러스(Asia+)'는 상호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자 기획된 인문교양총서다. 오늘날 중국인의 삶에 존재하는 길상(吉相)에 얽힌 문화적 코드를 담은 '중국 길상문화', 인도네시아 문화로 자리 잡은 바틱(batik·밀랍

의 저항력을 이용한 염색법)에 대한 '바틱으로 보다: 자바, 인도네시아 이야기', 필리핀에서 사랑받는 동화를 소재로 한 '필리핀 국민동화 바상 할머니 이야기: 스토리와 콘텐츠 활용' 등으로 구성됐다.

'아시아컬처랩'은 아시아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기고한 칼럼을 모은 책으로 모두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권 '신과 인간'은 신과 함께 살아가는 아시아인들의 모습을 신화와 의례, 예술과 일상문화 등을 통해 보여준다. 제2권 '삶과 문화'는 아시아인의 생활상과 사회상을 다룬다. 음식, 축제, 복식, 속담, 건축, 기호품 등 다양한 생활문화를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제3권 '전승과 교류'는 과거와 현재, 지역과 지역이 만나는 문화 현장을 보여준다. 고대의 화본, 전통 초상화, 유물, 건축에서부터 현대미술, 커피, 한류 드라마, 케이팝까지 아시아 문화양상이 담겨 있다.

한편 아시아컬처랩 원고 일부는 문화전당 웹진(webzine.acc.go.kr)에도 월 1회 연재되고 있다. 해당 도서는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과 광주 전남지역 독립서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 062-601-445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지난 21일 서울 중구의 한식당에서 '아트부산 2019' (30일-6월2일)을 홍보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행사를 주관한 이는 손영희 (사)아트소부산 대표. 개막을 10여 일 앞두고 서울 지역의 미술담당가자들을 대상으로 아트페어의 일정과 규모를 알리기 위해 서였다.

다. 개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아트광주의 주관단체를 다시 뽑는다는 재공고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뜬 것이다. 올해 아트광주 10주년을 기념해 예년보다 두세 달 빠른 지난 2월 광주미술 협회를 주관단체로 선정한 광주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문화행정의 민낯 드러낸 '아트광주'

아트부산이 불과 8년만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트페어로 발돋움한 데에는 1회 대회부터 운영해온 손대표의 열정과 노후가 있었다. 2012년 아트소부산으로 시작한 아트페어는 2015년 명칭을 '아트부산'으로 바꾸고 제 2의 출발을 선언했다. '아트비젼 마이애미비치'를 롤모델로 휴양과 예술이 어우러진 차별화를 내세워 부산지역 유명 호텔, 레스토랑, 클럽과 제휴를 맺고 VIP 대상 특별한 혜택전략을 펼쳤다. 또한 전 세계 최상위 미술품 컬렉터 30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온라인 미디어 '래리스 리스트(Larry's List)'와 손잡고 홍콩 등 각국 VIP 컬렉터들을 겨냥한 '스페셜리스트 투어'를 펼쳐 '아트부산에서는 작품이 팔린다'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다고 명시돼 있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시는 개최시기를 당초 9월에서 12월중으로 변경하며 재공고에 나섰지만 적격자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앙지에서 아트부산의 홍보 기사를 접하던 날, 오는 9월19일 개막 예정인 '2019 아트광주'의 비보(?)를 들었

다. 문화수도를 자처하는 광주에서 어떻게 이런 후진적인 행정이 가능한 지 그저 놀랐다. 무엇보다 9월 아트페어 일정에 맞춰 '광주행'을 준비해온 국내의 화랑들에게 뭐라고 해명할지 궁금

제64회 호남예술제 합창·합주 입상자				
합창	1 신은재 외 39명(화순만연초) ◇합창 고등부 ▲금상 1 임은호 외 24명(살레시오여고)	◇관현악 합주 초등부 ▲금상 1 김지원 외 75명(광주송원초) 3 심연서 외 46명(빛기람초) ▲은상 2 박하은 외 54명(진안초) 4 추정아 외 59명(광주교대광주부설초) ◇관악 합주 초등부 ▲금상 1 박서하 외 63명(광양제철초) 2 이상훈 외 48명(하남초) ◇타악 합주 초등부 ▲금상 1 김현우 외 8명(광주송원초) ◇관현악 합주 초등부 ▲금상 1 추정아 외 16명(광주교대광주부설초)	주부설초) ◇관현악 중주 연합팀 ▲금상 1 정주아 외 12명(hsy효성유스 청소년) ◇관악 중주 초등부 ▲금상 1 박예은 외 13명(번암초) 2 안시현 외 14명(유안초) ◇관악 중주 중등부 ▲은상 1 정민우 외 10명(목포덕인중) ◇관악 중주 연합팀 ▲은상 1 최미소 외 3명(조중등 연합팀) ◇현악 중주 초등부 ▲금상 1 이서영 외 14명(광주송원초)	5 이수빈 외 3명(조중 연합팀) 6 박태이 외 1명(광주송원초) 7 진유현 외 1명(광주삼육초) ▲은상 2 염유빈 외 11명(조중 연합팀) 3 박시은 외 5명(광주송원초) 4 박규진 외 3명(조중 연합팀) ◇현악 중주 중등부 ▲최고상 1 한수연 외 3명(중등 연합팀) ▲금상 2 김현서 외 3명(중등 연합팀) ◇현악 중주 연합팀 ▲은상 1 양재침 외 9명(조중고등 연합팀)

서구생활문화센터 30일 '문화기획-별별특강'

광주 서구생활문화센터는 30일 오후 7시 '문화기획-별별특강'을 연다.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특강에는 2019 대인예술시장 박상현 총감독을 초청, 대인예술시장 기획 경험을 살린 마켓 기획에 대한 노하우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와 별별장터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이다. 별별특강 후속활동으로 6월 8일에는 대인예술시장으로 장터 나들이를 갈 예정이며 22일 오후 1시-4시 마재근린공원에서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판매하는 '별별장터'를 기획·운영한다. 문의 062-654-432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역 기업에 지역의 인재를!

1972년 나주한독공업고등학교로 출발한 나주공업고등학교는 기계·전기계열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학생의 소질과 눈높이에 맞는 모듬교육을 통해 학생의 진로 결정을 지원합니다.

학교·교육청·기업·지자체가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우수기업에서 지역 인재가 자리잡고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학생, 할 줄 아는 학생으로 지역기업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질문과 토론을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전기과

- 교육과정 : 전기 내선공사 및 전기기기 제작, PLC-공유압 이용 프로그램 작성 및 운영
- 취득자격(기능사) : 공유압, 생산자동화, 승강기, 전기, 전기기기
- 직무 가능 유형 :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제조 내선공사시공, 전기전자 설비유지

기계과

- 교육과정 : 기계가공 기술 이용 가공조립, 설계 용접 및 특수용접 기술 이용 시공 및 설치
- 취득자격(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설비보전, 용접, 컴퓨터응용밀링, 특수용접
- 직무 가능 유형 : 부품제조 및 가공, 기계조립, 용접, 기계설치 및 정비

금형과

- 교육과정 : 2D 및 3D 기계설계 기술 이용 설계 MCT 및 CNC 공작기계 첨단 가공
- 취득자격(기능사) : 컴퓨터응용 밀링, 금형, 컴퓨터응용선반, 전산응용기계제도(CAD)
- 직무 가능 유형 : 기계설계, 금형제작, 부품가공, 기계설치 및 정비

우리학교 전체 학생 대상

- 교육과정 : 학생의 소질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모듬 교육과정 운영
- 취득자격(기능사) : 지게차, 굴삭기,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 기능사, 한국사 자격증을 재학생 70%이상 취득
- 직무 가능 유형 : 현장업무와 사무실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융합직무교육

- 학교와 기업에서 실무능력을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기업 맞춤형 산업체 기능요원 병역특례과정 **특성고고 인력양성 과정**
- 공공기관·대기업·공무원반 **취업역량강화 교육과정**
- 학생이 행복한 학교, 지역민과 함께하는 **매력적인 직업계고 교육과정**
- 설계, 3D모델링, 컴퓨터활용능력, 사무행정업무를 위한 **여학생 사무직 교육과정**
- 기계설계/CAD, 배관, 냉동기술 직종 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양성 **기능영재반**
- 전남교육청 개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통한 맞춤형 취업과정 **JOBs 교육과정**
- 대한민국 명장에게 배우는 현장실무 교육, 배관설비 CEO양성 **명장공방 봉사단**

(58246) 나주시 건재로 43 (대호동) 나주공업고등학교 tel:(061) 332-3914(교무실), 3911(행정실) / fax:(061) 333-0743